

# “코로나·나이 등 고민 많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광주 서구청 펜싱팀 강영미가 이달말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대비해 11일 광주시 체육회관 3층 펜싱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올림픽 펜싱 은메달 광주 서구청 강영미**

“포기하지 않으면 너는 나보다 더 잘될거야.”

2020 도쿄올림픽 펜싱 여자 에페 단체전 은메달의 주역 강영미(36·광주시 서구청)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후배들에게 항상 들려주는 말”이라고 소개했다. 그 자신이 30대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국가대표 주축에 진입했을 정도로 전형적인 ‘대기만성’형이다. 태극마크를 처음 단 건 2009년이지만, 꾸준히 선발되며 자리를 지킨 건 2015년 정도부터다. 이후 2017년 아시안선수권대회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2018년 2월엔 바르셀로나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개인전 입상을 이루며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선 개인전 우승까지 해내며 한국 여자 에페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다.

“불과 10초 사이에 많은 점수를 잃어도 결코 시합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늘 생각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는 국가대표팀 막내 이해인(26·강원도청)과 무려 10살 차이가 나지만 당당히 올림픽에서 기량을 과시했다. 어린 시절엔 핸드볼을 했던 그는 근력만큼은 동생들을 능가해 파워 넘치는 플레이로 상대를 괴롭히는 게 장점이다.

“젊은 선수들에 뒤지지 않기 위해 맘을 흘렸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층에서 하루 종일 훈련하고도 1시간 넘게 홀로 체력훈련과 기술훈련을 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체력

30대에 국가대표 주축 ‘대기만성형’ 나이 때문에 도태되기는 싫어 훈련 끝난 뒤 1시간 이상 개인 훈련 코로나에 올림픽 출전 포기 생각도 싹들 없이 다음주 국대 선발전 준비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각오로 최선

기술적으로 도태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강점은 팀웍이다. 선수들의 구심점은 강영미였다. 그는 만인이라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후배들을 다독였다고 했다. 이번 올림픽 개인전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단체전까지 영향이 우려됐었다. 실제 개인전에 나선 세 명 중 막내인 세계랭킹 18위 송세라(28·부산시청)가 유일하게 16강에 올랐으나 세계랭킹 1위인 마리아 포페스쿠(루마니아)를 만나 6-15로 겨 8강에 한 명도 들지 못했다.

“책임감과 부담감이 없지 않았지만 후배들의 긴장과 고민을 덜어주려고 더 신경을 썼습니다. 후배들에게 농담도 건네고 팀의 화합을 위해 노력했어요.”

강영미는 도쿄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려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 여자 에페 대표팀은 지난해 3월 헝가리 부다페

스트에서 열린 국제그랑프리대회에 출전했다가 귀국한 뒤 선수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멤버 중엔 강영미와 이해인이 당사자였다.

“병원에서 투병 치료하는데,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때 심하게 울림 포기를 고민했어요. 생사 갈림길에서 펜싱에 매달려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림픽이 연기됐는데 그때까지 체력이 유지될까 등등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팀에 복귀해서 훈련하면서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 펜싱인데 끝까지 가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요.”

국가대표팀 에이스이자 광주 서구청 펜싱팀의 리더인 강영미는 설 겨를 없이 당장 다음 주부터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선다. 오는 8월 17일 강원 홍천에서 열리는 제61회 대통령배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이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냈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차곡차곡 랭킹포인트를 따내야 내년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시안게임, 올림픽, 세계선수권 대회 금메달 등 욕심은 많지만 우선 국가대표가 돼야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무대에서 성적을 내려면 유럽 선수들을 넘어셔야 하기 때문에 부족한 기량을 더 더마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함니다.”

/글·사진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이정훈 수영감독 “황선우, 내년 아시안게임 3관왕도 가능”

**계영 800m서도 새 역사 기대**

이정훈(49) 한국 수영대표팀 총감독은 도쿄에서 희망을 본 황선우(18·서울체고)가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도 가능하리라고 자신했다.

이 감독은 11일 대한수영연맹이 황선우에게 아시안 기록 포상금 1000만원을 전담하는 행사에 참석한 뒤 2020 도쿄올림픽을 되돌아보고 황선우의 앞으로 훈련 계획 및 목표 등을 밝혔다.

황선우는 도쿄올림픽에 참가해 남자 자유형 100m 준결승에서 47초56의 아시안신기록 및 세계주니어신기록을 세웠다. 도쿄 대회 자유형 100m 결승에서는 5위를 차지했다.

자유형 200m 예선에서도 1분44초62의 한국신기록 및

세계주니어신기록을 세우고 준결승에 진출한 뒤 한국 선수로는 박태환 이후 9년 만에 올림픽 경영 결승까지 올라 7위를 차지한 바 있다.

도쿄올림픽은 끝났지만 바로 내년에는 후쿠오카 세계선수권대회와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린다.

이 감독은 “도쿄에서 느낀 게 자유형 200m를 뛰면서 세계적인 선수들은 예선부터 기록이 좋다. 예선, 준결승, 결승 세 번을 뛰어야 해 체력소모도 많다”면서 “선수가 이번엔 큰 에피소드를 치렀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쿠오카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형 200m에서는 선수가 매달린 안에 충분히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는 뛰는 종목마다 금메달을 목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감독은 “자유형 100m와 200m는 (금메달이) 확실하다면서”(단체전인) 계영 800m와 자유형 50m도 욕심부리면 좋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감독은 특히 계영 800m에서 새 역사를 기대했다. 이 감독은 황선우 최대 약점으로 체력을 꼽았다.

그는 “지금까지 황선우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하지 않았다. 앞으로 웨이트 훈련을 점진적으로 시키면서 체중도 5kg 정도 늘리려고 한다. 다만, 선우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 찾아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감독은 “자유형 50m와 100m, 200m 그리고 개인혼영 200m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개인혼영 200m에서도 좋은 기록이 나올 것 같고, 자유형 50m는 스피드 훈련 때문에 해야 한다. 접영도 국내대회에서는 뛰어볼까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배구 새 시도...주심 요청 비디오 판독 무제한

한국배구연맹(KOVO)이 오는 14일 경기도 의정부체육관에서 막을 올리는 2021 의정부·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에서 새로운 규정을 시도한다.

바로 주심의 요청에 따른 비디오판독 제도다.

연맹은 잦은 합의 판정으로 경기가 늘어지는 것을 막고 더 정확한 판정을 기하고자 주심이 직접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제도를 이번 컵대회에 도입한다고 11일 설명했다.

다시 말해 판정이 모호한 상황에서 주심이 부심과 선심들을 불러 모아 의견을 묻는 합의 판정 대신 주심이 직접 휘슬을 불고 경기위원에게 양손으로 비디오 판독 시그널을 요청하는 제스처를 취한다. 더욱 눈길을 끄는 내용은 주심의 셀프 비디오판독 요청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이다.

연맹은 이런 내용을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남녀부 13개 구단과 국군체육부대 감독에게 미리 알렸고, 11일에는 심판들에게도 규정 변경과 함께 ‘셀프 비디오 판독’을 설명했다.

현재 연맹 운영 요강을 보면, 각 팀은 세트당 1번에 걸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다. 심판의 오심으로 원심이 번복되거나 판독 불가 상황이면 각 팀은 비디오 판독 요청 기회를 그대로 유지한다.

주심의 비디오 판독 요청 제도가 판정과 관련해 감독과 심판의 의견이 대립하거나 양측이 강하게 충돌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시체육회, 첨단체육공원 파크골프장 무료 시범운영

광주시체육회는 첨단체육공원 내 파크골프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하고 있다. <사진> 시체육회는 “도심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첨단체육공원 파크골프장(9홀)을 무료로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체육회는 첨단체육공원을 최근 수탁 관리하고 있다.

골프장 이용 시간은 하절기(4월~9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동절기(10월~3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매주 화요일은 잔디관리 및 시설보완을 위해 휴장한다. 이용요금은 광주시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은 파크골프장 규칙에 따라 한 개조(4명)를 구성하여 경기에 임하고 체온측정, 방문자 기록 작성, 거리두기 등의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시체육회 관계자는 “앞으로 광주시와 광주시파크골프협회와 협의해 크고 작은 대회를 유치해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더 많은 파크골프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여수 국제배드민턴대회 코로나 확산으로 취소

이달 말 한국에서 여수에서 열릴 예정이던 배드민턴 국제대회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500 코리아 오픈’(총상금 32만달러)이 코로나19 문제로 취소됐다.

BWF는 오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여수 전남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코리아오픈이 취소됐다고 11일 발표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한 달 이상 멈추지 않고 더 극심해지는 사정으로 개최지인 여수에서 대회 개최 불가를 알리며 부득이하게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정상 개최됐다면 코리아오픈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배드민턴 대회가 될 수 있었다. 코리아오픈은 또 2020 도쿄올림픽 이후 첫 BWF 월드투어 슈퍼 300 이상급 국제대회로 될 예정이었다.

코리아오픈 취소로 도쿄올림픽 이후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모이는 첫 대회는 대만에서 열린 전망이다. 대만오픈은 9월 7일부터 12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예정이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싱크홀
2관	모가디슈
3관	싱크홀, 더 수어사이드 스워드
4관	싱크홀
5관	싱크홀
6관	모가디슈
9관	프리 가이
7관 씨네커튼	보스 베이비 2, 블랙 위도우, 극장판 도라에몽: 친구의 신공룡
8관 씨네커튼	모가디슈, 방법: 재차의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박수를 보내다**

독주회 11  
원재현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1. 08. 21.(토)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GAC 11시 음악산책 5**

조진주, 소리너머

일시 : 2021. 08. 25.(수)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2